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 도내 30지구 선정

농어촌公 전북, 사업비 3107억원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등 확정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전국 최대 규모인 30지구 사업비 3,107억원의 배수개선사업이 신규착수 및 기본조사 대상지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재배작물 현황조사 및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달성된 성과이다.

배수개선 사업은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50ha 이상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의 주요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다.

신규 착수 지구는 완주 남정 등 14지구(1,373억, 1,877ha)가 선정되어 금년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할 예정이며,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된 익산 함라 등 16지구(1,734억, 1,915ha)는 사업 타당성 분석, 주민의견수렴 등 기본조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도 신규 착수 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조사 대상지 중 논콩지구 배수개선사업은 9지구(687억, 1,098ha)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지역에서 대규모로 선정되어 지역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올해 사업비 889억원을 확보하여 43개지구(계속(39), 준공(4)), 6,128ha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중이다.

전북지역본부의 배수개선사업 예산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2021년 643억, 2022년 706억, 2023년 598억, 2024년 815억), 올해에 확보한 배수개선사업의 예산 889억원은 작년에 확보한 815억원 대비 11% 증가되었다.

추진 중인 43개 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은 홍수시 신속한 배수처리를 위해 배수장 18개소와 배수문 91개소, 배수로 380km(704조)를 신설·확장하는 계획이다.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신설·확장함으로써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피해 방지와 농가소득 증대 등의 사업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김동인 본부장은 "최근 정부의 타작물 재배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논콩, 가루쌀 등의 농작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수개선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미래를 위한 균형 잡힌 오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북은행이 함께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노력할 것"

전은 백종일 은행장 '저출생 극복 금융권 챌린지 캠페인' 동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백종일 은행장이 저출생 위기 극복과 가족친화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저출생 위기 극복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 정착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대표적 인구소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의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북은행은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사내 정책들을 적극 시행중이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유치원 보조비 및 보육수당 지급, 난임 휴직 및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자녀출산 경조금 지원, 임산부 단축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입학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도를 운영 중이다.

백종일 은행장은 "인구문제는 국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전북은행은 이를 위해 육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지리산농협과 대설 피해 농가 구호물품 전달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지난 17일,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과 대설과 한파 피해 농가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에는 오영석 지부장과 정대환 조합장 및 임직원들은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농가를 위로했다.

이번에 전달된 구호물품은 1박스당 7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 농가 40여 가구에 전달되었다.

정대환 조합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대설·한파 피해가 조기에 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오영석 지부장은 "대설·한파 피해 농가에 이번 구호물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진청, "초봄 배 과수원 '병해충 밀도 낮추기' 힘써야"

병해충 월동 부위 제거… 절단 부위에 도포제 처리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안정적인 배 과수원 관리를 위해 겨울나기 뒤 병해충 밀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병, 겹무늬병, 줄기마름병 등은 배나무의 병든 줄기 부위에서, 검은별무늬병은 병든 낙엽에서 겨울을 난다. 또한, 이른 봄에는 주경배나무이, 깍지벌레, 복숭아순나방 같은 주요 해충들이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나기 뒤에는 죽어가는 그루터기를 정리하고 가지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이때 상처 부위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가지 절단면에 즉시 도포제를 발라 준다. 도포제를 바르지 않으면 나무줄기가 썩어 들어가거나 상처 부위가 다시 해충 월동처가 될 수 있다.

병해충 약의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줄기의 거친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거친 껍질을 벗기면 주요 병해충을 직접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가지치기와 가지를 고정할 때 곁가지 간격을 일정하게 작업하는 것도 약제가 고루 부착되게 하는 방법이다.

가지의 그루터기를 제거한 모습

아울러 해충의 잠복 장소가 될 수 있는 남은 나뭇잎, 열매 봉지, 유인 끈 등을 처리해 과수원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특히 검은별무늬병 병균의 초기 밀도를 줄이려면 낙엽을 땅에 묻고 과수원 곳곳에 석회유황합제를 뿌려준다.

과일나무 재배에 위협적인 화상병도 주의해야 한다. 낙엽이 진 뒤 잎이 떨어지지 않은 나무가 있다면 화상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예찰 앱으로 확인한 뒤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의심 나무는 빠르게 격리 조치한다.

농촌진흥청과 농협 케미컬이 2월 말부터 배포 예정인 '원예작물 방제도우미' 앱을 활용해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과수원 위치에 맞춰 주경배나무이 방제 시기와 생육기 문제가 되는 주요 병해충, 수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최경희 과장은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제때 약제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 병해충 밀도를 낮게 유지하고 살포 약제가 충분히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배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LX, 토지형상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년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LX공사의 업무공정률 조정으로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40→47%)되었으며, 소규모 사업지구(200필지 미만) 또는 도서·재난·위험지역 등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사업완료를 필요로 하는 중점관리지구는 책임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여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가 선정되어 12.8억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5일간(1.14~1.31.) 진행하여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되었으며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하여 LX공사에 승계하면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정,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농협 전북본부, 전북신보와 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나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약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1월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별대출을 시작으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회생보듬자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저금리의 지자체 협약대출, 소상공인 정책대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다소나마 경영난을 해소 할 수 있고, 금리부담 경감 등 저금리 신규대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성훈 본부장은 "우리 농협은행의 핵심가치는 고객과의 동반성장으로 앞으로도 금융지원을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도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